

“지역주의 조장 발언 없었다…사실에 기초해 판단해 달라”

이재명 지사 광주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과 관련한 ‘지역주의 조장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나친 네거티브에 대한 당의 제지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까지 사회화됐다’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언론인과 지역민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했던 인터뷰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SNS 등에 게시했으며, 지난해 7월30일 이낙연 후보에게 진심을 담아 드렸던 메모도 올려 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이야기할 적 없는데, 마치 지역 이야기할 한 것처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이 지사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도 밝혔다. 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 성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국가 자체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는 ‘역강부약(抑強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에 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수 개인이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절제시키고, 다수의 약자들이 부당한 것을 당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맞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에서 자신의 상승세가 꺾이고 호남 출신인

경선과정 불리하더라도 지사직 유지 지지를 떨어선 건 제 부족함 때문 사회적 약자 할당제 반드시 필요 호남 초광역에너지공동체 국가 개입 공항 이전 터 AI 스마트 도시 조성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데에는 “제 지지율이 떨어졌기보다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이 강하다”면서 “민주당이 그러다 보면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선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저의 지지자들이나 저 자신조차도 느슨한 상태를 좀 조여서 더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결정적으로 예비경선 때 저의 부족함과 자제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더라도 지사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는 한 명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공직을 맡아서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유리함 때문에 공적 책임을 쉽게 던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역상황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방역책임자로서 한 시라도 도정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저한테 불리함이 있더라도 경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경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공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피력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은 능력주의로 포장됐지만 극우 포퓰리즘에 가깝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은 국가가 대대적으로 개입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좀 책임지고 공항을 이전하되, 주택건설이 아닌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혁신 스마트도시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심각한 핵심적 과제인 만큼 경제터당성 조사(BC)가 다투더라도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4년 전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과거에 비해 유연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 그는 “제가 모난 돌이어서 많이 맞았다. 세상의 불편한 부조리 부정의 함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정면으로 부딪다 보니 상처도 많이 받고 정도 많이 맞았다”며 “세상과 교감하면서 강가에 반들반들한 조약돌이 됐다. 돌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강한 추진력,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정치적 논쟁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그게 우리 시대 리더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년 전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과거에 비해 유연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현일 기자 cki@kwangju.co.kr

호남 프레임·지역주의…민주 후보들 의견 엇갈려

이낙연 “이재명 백제발원 실언” 이재명 “극단적 네거티브” 김두관 “지역주의 불러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한 이진투 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호남 프레임’ 논란이 부상하면서 호남 민심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호남 프레임은 ‘영남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후보로는 대선 승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역 구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다.

호남 프레임이 부상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터뷰가 시발점이 됐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다. 충청하고 손을 잡았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서 매우 골고루 득표를 받고 계시어서, 이 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견 역사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 후보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뭘나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장력이고,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 받을 수 있는 후보는 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도를 타파하려 하셨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를 훼손하는 발언이며 정중으로 ‘확장’을 원한다면, 남은 지역대립구도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출신의 정세균 후보도 같은 날 “민주당 후보라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금도가 지역주의”라며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발언이며 정치적 확장력을 출신 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사실상 일베와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적 지역주의를 조장한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극단적 네거티브가 아쉽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지난해 7월 30일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정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는 이낙연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던 때여서 제가 이기는 것보다 이 후보께서 이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한반도 역사 최초의 호남 중심 대통합을 이루시고 광국적 지역주의를 끝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낙연 후보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 이유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 때문이었다”며 “한반도 역사에서 언제나 호남은 혁명과 개혁 정신의 본향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이었지만 애석하게도 5년 전 역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을 통해 절반의 승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앞뒤를 보니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게 분명하다”며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지역주의를 불러내지 말라”고 이재명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이어 “이번 논란은 ‘군필원팀’ 사진보다 더 심한 악마의 편잡”이라며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고(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피를 토하며 외치던 동서 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거들떠보기는 하고 계시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호남 프레임 이슈 부상은 결국 여권의 정권재창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호남 프레임 논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구도가 출몰일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자치분권 20 시대는
자율과 협력에 의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www.pcad.go.kr

지역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주민주권이
구현되는 지방자치 본격 시행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 서비스 제고

지역과 중앙이
새롭게 협력하여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 지방정부가 우선 처리

자치경찰제로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